

이 자료는 2026년 04월 02일 부터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1> 	담당과	기업지원팀
		담당자	박민재 주무관
		전화번호	031)501-5700
본 보도자료는 시흥상공회의소 인터넷(http://shiheungcci.korcham.net)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55차 시흥경제인오찬강연회 성료

시흥상공회의소(회장 성낙헌)는 4월 2일(목) 11시, 시흥비즈니스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을 초청해 「미 연준 통화정책과 한국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제155차 시흥경제인오찬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에는 지역 기관장과 기업 CEO 및 임원 등 약 160여 명이 참석하여 최근 글로벌 경제 흐름과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강연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서 이인철 소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의 흐름을 중심으로 향후 금융시장 환경과 기업 대응 전략을 설명하였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안정 여부를 확인하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올해는 연 1회 이하 금리 인하 또는 동결 가능성이 시장에서 우세하게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미 기준금리 추이와 경제 성장률 전망을 비교하며 미국 경제의 상대적 견조함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만큼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세계 경제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관련해서는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강연에서는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와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국은 행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 대응 전략으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환헤지 비율 확대 ▲에너지 비용 절감형 설비 투자 확대 ▲단기 변동금리 중심의 금융구조를 장기 고정금리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시흥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흥경제인오찬강연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강연회는 2026년 9월 3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다.

끝.

